

## 2020년 12월 13일 “아브라함이야기(14) 멋진 백발로 맞이한 죽음”(창 25:5-11)

성도의 큰 관심 중 하나는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25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1] 아브라함의 죽음

**8절.**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 (개역개정) 나이가 높고(= 연세가 많다)

원어를 보면 ‘높고’라는 말에 토브(좋다 good)를 사용하여 그의 죽음을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토브’는 좋다, 선하다, 유쾌하다, 번영, 복지, 이익 등의 뜻을 갖는 선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익숙한 용례는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입니다(창 1장).

또한 나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백발의 머리(노령)을 뜻하기도 하는데, 좋은 백발의 모습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잠 20:29**,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잘했을까요?

먼저 **25장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첩들로부터 얻은 아들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한 몫씩 나누어 주고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합니다. 아쉽지 않게 해주면서 이삭이 장자권을 잘 지키게 해주는 조치입니다.

**25:9**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함께 서있는 모습은 그들의 관계가 화목함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 가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이삭의 상속과 그로 인해 번성할 후손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차원에서의 일이지만 주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2] 아브라함이 기여와 축복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신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창 3-11장**을 보면 아담/하와의 불순종, 가인의 살인, 노아 시대의 타락, 바벨탑 쌓으며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련의 인간의 죄의 행위들은 창조 질서를 역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첫 세 사건 후에는 회복을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네번째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을 흠으신 후에는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던 중,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데 보여준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1)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동행과 교제입니다. 이것은 타락 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시며 아담과의 친밀한 삶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마침내 축복을 맹세하시는 관계로 회복된 모습은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이루기를 바라셨던 바였습니다.

(2)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가꾸고 지키고 주변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 2장**에서 아담이 부여 받은 아바드와 샬마르의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주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가정 안에서 관계를 가꾸고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람의 본분을 행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내적 자질입니다. 종종 내적 자질은 선한 성품, 교통하는 관계성, 좋은 안목, 뛰어난 능력 등을 떠올리지만, 그것에 앞서야 할 내적 자질은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조급함이나 비판이나 자기 주장을 미룰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신앙을 갖고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이룰지에 대한 자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바벨탑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변을 사랑하여 가꾸고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참 평강과 행복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복음적 삶입니다.

#### **맺음:**

아브라함은 멋진 백발을 가지고 죽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반경 안에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추구할 때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흔들림도, 두려움도,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기쁨이 됨으로써 주님이 부으시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후손으로서 풍성한 유업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라함의 일생 중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일들을 열거해 봅시다.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믿음의 본으로 삼으신 것을 볼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까?
2.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하며 느낀 바를 정리해 봅시다. 우르를 떠날 때부터 모리아 산을 거쳐 죽음의 문을 열 때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